

나주소방서, 캠핑장·야외시설 화재안전관리 당부

봄철 야외시설 대상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나주소방서, 캠핑장 시설 유광기관 합동 점검 사진

/나주시 제공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관내 캠핑장과 야외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컨설팅은 캠핑장 내 화기 취급 부주의, 전기시설 과부하, 숯불, 화로대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나주소방서는 캠핑장 및 야외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비치 및 관리 상태 확인 ▲전기배선·콘센트 등 전기시설 안전사용 지도 ▲화로대·숯불 사용 후 잔불 처리 요령 안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금지 및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교육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이용객 대피 유도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을 대비해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컨설팅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캠핑장과 야외시설은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컨설팅은 캠핑장 내 화기 취급 부주의와 전기시설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주소방서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점검부터 전기·난방기구 사용 안전수칙까지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서선택 기자

담양, 다양한 체험 즐기는 제25회 담양대나무축제

화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제25회 담양대나무축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실내 체험장에서는 아이들이 안전모를 쓰고 대나무 목마를 타며 균형감각을 키우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손수 오랑다를 만들며 달콤한 추억을 쌓고 있다.

관방제림에서는 대나무뗏목을 타고 물 위를 천천히 이동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

야외 체험존에서는 워터볼 등 놀이시설을 체험하기 위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

지난 1일 개막한 담양 대나무 축제는 어린이날인 오는 5일까지 이어진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경로당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영광군 경로당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사진

/영광군청 제공

도록 도왔다. 또한 손씻기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효과 및 위생 습관 형성을 유도하였다.

영광군보건소장은 “손씻기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방법으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과 일상 속 위생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손씻기 실습을 통해 평소 습관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또한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돼 어르신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 효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영광군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경로당 10개소(200명)를 방문해서 ‘손을 반짝! 건강도 반짝!’ 손씻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위생 습관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손씻기 필요 상황

안내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시연 및 실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손씻기 챌린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직접 따라 해보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손씻기 6단계를 반복 실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익히고, 일상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 지급” 군민 부담 경감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가 경영난 해소 목적

장성군이 최근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 지급 관련 일부 언론의 지적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보조금 송금 일자를 당초 계획했던 4월 17일에서 13일로 변경하자, 장성군도 지급 시작일을 기존 4월 28일에서 23일로 5일 앞당겼다.

전남도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지급 기간은 5월 14일까지 약 3주간이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예정대로 공익수당을 지급하면 피해지원금 지급과 겹쳐,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과중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4월 22일 이전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한 지역은 여수시와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군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 포스터

/장성군 제공

총 8곳에 이른다. 강진군도 장성과 같은 날인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23일 하루 만에 거의 지급이 완료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첫날 지급률은 약 51%로,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돼 매년 60만 원씩 지급되던 농어민 공익수당이 올해부터

7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홍보와 안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당연했다”며 “23~24일 집중 지급한 사유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성군의 해명자료는 장성군 누리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